

정신장애인을 위한 동료지원가 직업 영역 개발 연구

Development of Peer Support Program of people with mentally disabled

신정하, 신윤재, 이명수

JH Shin PRN, YJ Shin MSW, MS Lee MD, MPH

초 록

- **연구목적** : 동료지원가가 정신장애인의 직무로 가능할 것인지 탐색하고 동료지원서비스의 효과성을 분석하여 정신장애인 동료지원가 직무영역 개발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 **연구방법** : 동료지원가, 동료지원서비스 이용자, 동료지원가 고용 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2013년 9월 부터 12월까지 사전-사후 평가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효과성 분석을 위해 윌콕슨의 순위검증(Wilcoxon Matched-Paris Signed-Ranks Test)을 수행하였다.
- **연구결과** : 동료지원서비스의 효과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설문조사를 통해 동료지원가와 동료지원서비스 이용자들의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결론** : 동료지원가는 동료지원서비스의 장점을 살린 정신장애인의 새로운 직무로 앞으로 확산 및 보급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노력과 지원이 요구된다.
- **주요용어** : 동료지원프로그램,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Abstract

- **Objectiv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possibilities and effectiveness of Peer Support Program(PSP) for building up the evidence of new vocational rehabilitation territory for mentally disabled people.
- **Methods** : From September to December in 2013, pre- and post-evaluation was conducted to the PSP providers, PSP users and mental health practitioners of project-participating mental health agencies. Wilcoxon Matched-Paris Signed-Ranks Test was performed for statistical analysis.
- **Results** : There were no definite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however the subjective responses of PSP providers and users were promising. They reported positive emotional experiences while providing and receiving PSP which could make positive influences for their recovery.
- **Conclusion** : PSP could be a promising strategy to exp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territory and also contribute to the recovery of people with mentally disabled.
- **Keyword** : Peer Support Program, Mentally disabled, vocational rehabilitation

1. 서론

현대 사회에서 직업은 기본적인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경제활동을 넘어 사회구성원으로 최소한의 삶의 질을 유지하는 전제조건이다.

따라서 안정적인 고용 유지는 지역사회에 참여를 가능케 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이것은 정신장애인에게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정신질환에 대한 일반적인 편견과 잘못된 이해, 정신장애인

의 직업에 대한 제한된 경험과 근로자로서의 이해부족, 사업주들이 정신장애인의 고용에 소극적인 이유 등으로 정신장애인의 취업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오랜 직업재활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미국이나 서구에서도 취업률이 그리 높지 않아 직업재활 프로그램에 만족스러운 성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장경희, 2006). 특히 우리나라의 정신장애인의 취업률은 타 장애유형보다 열악하며 거의 최하위 수준이다.

2011년 보건복지부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15세 이상 정신장애인의 취업자 비율은 11.12%로 장애유형 평균 35.49%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지체장애 43.95%, 시각장애 42.17%보다 월등히 낮은 수치이다. 또한 취업 장애인의 평균 근로 근속기간은 112개월, 임금근로자 기준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42시간, 그리고 임금근로자 기준 월 평균수입은 143만원인 것에 비해 정신장애인의 평균 근속기간은 58개월,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31시간, 월 평균수입은 53만원으로 취업 장애인 평균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취업한 정신장애의 주요 직무로는 단순노무직이 68.7%로 가장 많고 농림어업종사자(13.5%), 서비스종사자(7.4%), 장치기계조작조립종사자(6.4%), 전문가종사자(2.0%) 순이었다(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는 2012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과 MOU를 맺고 정신장애인의 직업영역을 개발하고 정신장애인 취업 가능 대상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일자리 연계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였다. 그 일환으로 서울지역 정신보건기관 9개소를 대상으로 직무분석을 실시하여 17개 직무를 발굴하였으며 그 중 고용 가능성이 높은 동료상담가, 카페매니저를 선정하여 2012년 11월 27일 ~ 12월 26일까지 정신장애인을 고용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하였다.

시범사업을 통해 동료상담 및 독립주거코디네이터, 가정방문지원자의 고용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2013년에는 정신장애인의 특성을 살린 전문직종인 '동료지원 프로그램(Peer Support Program, PSP)' 직무를 개발 및 보급하기 위한 정신장애인 고용활성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동료지원프로그램이란 회복과정을 경험한 정신장애인이 도움이 필요한 다른 동료 정신장애인의 회복을 돕는 것을 말하며 주요 업무로는 동료상담과 프로그램 진행, 교육 강사 활동이 있다. 이것은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가 있는 당사자가 바로 전문가라는 점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장애라는 공통적인 분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여 감정을 분출시키고 이를 통해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동료들에게 지지를 받음으로써 사회에 대하여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정신장애로 인하여 자신만의 생활방식을 상호교환 할 수 있다(임기현, 2003).

또한 Salzer와 Shear(2002)는 동료제공서비스의 다섯 가지 긍정적 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사회적 지지로서 소속감과 성장에 대한 긍정적 지지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둘째, 경험적 지식으로서 질병에 대한 대처, 자기결정 및 선택에 있어서 실제적인 정보와 적극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셋째, 사회적 학습을 통해 긍정적인 행동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질병이나 서비스에 대응하는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다. 넷째, 사회적 비교를 통해 성장과 희망에 대한 동기를 제공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오히려 자신의 역량과 자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 외 동료지원서비스가 병원이용을 감소시키고, 사회적 지지와 기능 및 삶의 질을 높이며,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료지원서비스를 받는 당사자들은 삶의 질이 높아지고 동료에 대한 태도가 변하고 낙인 및 부정적인식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eebles et al. 2007, 하경희, 2012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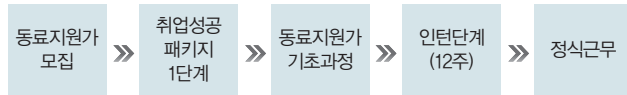
이러한 긍정적 효과들은 지역사회에서 고립되어 있는 정신장애인의 재활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자신과 같은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이 잘 회복되어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정신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큰 힘과 용기가 될 수 있다.

외국의 동료지원서비스는 미국과 일본에서 주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동료상담의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역사회 정신보건기관을 중심으로 정신장애인이 같은 어려움을 가진 동료의 가정을 방문하거나 상담, 일상생활 및 여가활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었다(송경옥, 2010). 그러던 중 2008년 동료방문서비스가 서울모금회의 지원 사업으로 '동행'이라는 이름으로 선정되었다(한울, 2013). 이를 통해 동료지원서비스의 가능성이 확인되고 활용하는 사회복귀시설이 늘어나면서 2012년에는 동료 멘토링, 프로그램 진행, 자조모임 운영, 이용안내 등의 활동을 하는 정신장애인 동료상담가라는 직종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시범적인 시험고용 활동을 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2013년 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는 서울시의 예산 지원을 토대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과 함께 정신장애인 동료지원가 직무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정신장애인 고용활성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동료지원가로 활동하고자 하는 정신장애인을 모집하여 기초과정 교육 후 2013년 9월부터 정신보건기관에서 동료지원가로 활동하기 시작하였으며 2013년 12월 기준 총 12명의 동료지원가가 서울지역 6개 정신보건기관에서 근무 중이다.

본 연구에서는 동료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동료지원가가 정신장애인의 새로운 직무로 가능한지 탐색하고 동료지원서비스의 효과성을 분석하여 정신장애인 동료지원가 정착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 그림 1. 서울시 동료지원프로그램 체계도



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방법

1) 정신장애인 동료지원가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서울지역 6개 기관에서 동료지원가로 활동하고 있는 정신장애인 12명이다. 조사기간은 2013년 9월부터 2013년 12월까지로 동료지원가로 활동을 시작하기 전 자아존중감, 정신건강회복, 사회자립도, 삶의 질에 대한 사전평가를 실시하고 4개월 후 사후평가를 시행하였다. 또한 사후평가와 함께 동료지원가가 정신장애인의 직무로 적합한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 동료지원서비스 이용자

동료지원서비스 이용자는 동료지원가가 근무하고 있는 정신보건기관에서 동료지원가에게 프로그램 진행, 동료상담 등의 서비스를 받았으며 설문조사를 통해 동료지원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와 동료지원가 직무 적합성에 대해 조사하였다. 동료지원서비스 이용자 25명 중 17명은 동료지원서비스를 이용하기 전 자아존중감, 정신건강회복 사전평가를 실시하고 동료지원서비스 이용 후 같은 척도로 사후평가를 실시하여 동료지원서비스의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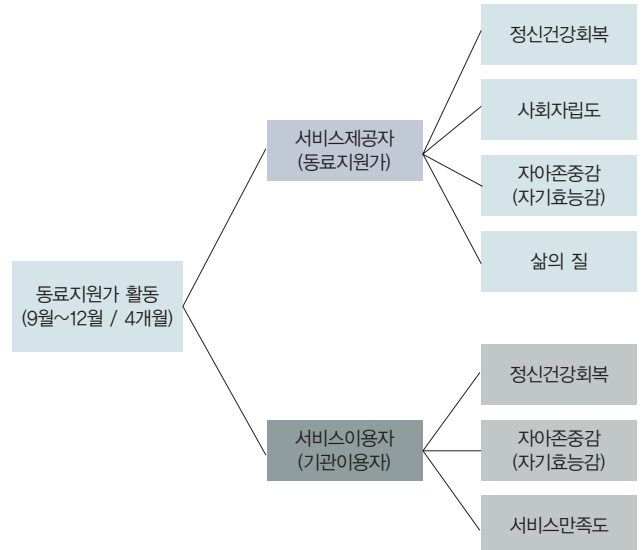
3) 동료지원가 고용 기관 실무자

동료지원가를 고용한 기관의 실무자 6명을 대상으로 동료지원가의 직무적합성과 실무자로서 동료지원가와 함께 근무하는 것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동료지원서비스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SPSS 18.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동료지원가와 동료지원서비스 이용자 모두 30명 이하이므로 윌콕슨의 순위검정(Wilcoxon Matched-Paris Signed-Ranks Test)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는 동료지원활동 전, 후이며 종속변수는 동료지원가의 경우 자아존중감, 정신건강회복, 사회자립도, 삶의 질이며 이용자는 자아존중감과 정신건강회복이다. 또한 동료지원가 및 동료지원서비스 이용자의 수가 적고 조사 기간 또한 짧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 그림 2. 연구모형도



3. 평가도구

본 연구에서는 동료지원서비스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해 총 4가지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동료지원가의 사전-사후 검사는 동료지원가로 활동하기 전 자아존중감 척도, 정신건강회복척도, 사회자립도 척도, 삶의 질 척도이다. 이후 4개월간 동료지원가로 활동 후 같은 척도로 사후검사를 시행하였다.

동료지원서비스 이용자의 사전-사후검사는 동료지원서비스의 효과성을 볼 수 있는 자아존중감 척도와 정신건강회복척도를 사용하였다.

1) 자아존중감

Peebles et al.(2007)에 따르면 동료지원서비스가 자존감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Rosenberg(1965)가 개발하고, 전병재(1974)가 번역한 자아존중감 척도(Rosenberg Self-Esteem Scale(RSES))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0문항이며 신뢰도와 타당도가 매우 높고 총체적인 자아존중감을 측정하는데 권장할 만한 도구로 알려져 있다. RSES는 5점 척도지만 4점 척도로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부정적 문항은 역점으로 처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2) 정신건강회복

회복패러다임에 기반을 둔 동료지원서비스는 정신장애인이 동료지원서비스를 통해 회복이 가능하다는 전제로 시작한 것이다. 따라서 동료지원서비스를 이용하기 전후로 회복의 변화를 보는 것은 동료지원서비스의 효과성을 확인하기에 적절하다고 본다.